

와이즈버즈,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

- ▶ 엔에이치스팩12호와 합병상장 예비심사 통과... 연내 코스닥 상장 계획
- ▶ 자체 플랫폼 '애드윗' 통해 페이스북·구글·인스타그램 파트너 선정, RTB 광고 생태계의 핵심으로 부상
- ▶ 검색 광고 및 크리에이티브 신규 사업 통해 글로벌 광고 시장 선도할 것

<2020-04-20> 글로벌 애드 테크 기업 와이즈버즈(대표이사 김종원)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와이즈버즈는 지난 1월 제출한 엔에이치스팩12호와 합병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대해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합병상장 절차를 거쳐 연내 코스닥 상장 예정이다.

2013년 설립된 와이즈버즈는 RTB(Real Time Bidding) 미디어 광고 전문 기업이다. RTB란 특정 온라인 페이지의 광고 인벤토리를 일괄 구매하는 대신, 광고 메시지에 부합하는 소비자가 온라인 페이지에 접속 시 실시간 입찰을 통해 해당 유저 대상 인벤토리를 구매하는 형태다. 정교한 맞춤형 타기팅(targeting)으로 높은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다.

회사는 광고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등 RTB 미디어 광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자체 개발한 RTB 플랫폼 애드윗(ADWITT)은 타깃 분석 고도화 및 경매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광고 지면을 빠르게 선점한다. 이를 통해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RTB 미디어 광고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와이즈버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에게 Ad Technology 마케팅 파트너로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기업이며, 2017년엔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로 선정돼 광고 세일즈 및 집행 역량을 입증했다. 현재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세계 150여 개국 이상에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RTB 미디어 광고에 특화된 기술력은 지속 성장 및 2019년 매출액 105억 원, 영업이익 39억 원 달성의 쾌거로 이어졌다. 광고비 취급고는 2013년 10억 원에서 2019년 1,076억 원으로 큰 폭 뛰어올랐다.

상장 후 RTB 미디어 광고 사업 볼륨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검색 광고 및 크리에이티브 사업을 추진해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최근 검증된 디스플레이 광고 업체에 검색 광고를 일임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캡티브 마켓을 중심으로 검색 광고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고 소재를 직접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사업을 통해 RTB 사업과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와이즈버즈 김종원 대표이사는 "RTB는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 시스템으로, 당사는 애드 테크 및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RTB 미디어 광고 전문 기업"이라고 설명하며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등 핵심 미디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검색 광고 및 크리에이티브 신규 사업을 통해 글로벌 광고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